

56년만에 오남매 극적 상봉 “단번에 알아봤죠”

최종원 씨 ‘가족찾아주기’ 신청...장성경찰 도움으로 결실

헤어진 오남매가 정성껏 가족을 찾아준 경찰의 도움으로 56년만에 상봉했다. 2급 장애를 가진 최종원(65)씨는 1969년 당시 11살에 부산 국제시장에서 가족을 잃어버렸다. 말이 어눌해 소통이 힘들었던 그는 부산 고아원에 강제 입소된 후 장성으로 이주해 다른 이름으로 56년간 살았다. 지난 2월 갑작스런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그는 가족을 찾고자 장성경찰서에 ‘헤어진 가족찾아주기’를 신청했다. 경찰은 전국적인 탐문수사 벌였고 결국 지난 7일 장성경찰서에서 오남매의 극적인 상봉이 이뤄졌다. 큰 형인 종복(68)씨는 동생을 만난 날을 회상하며 “기적 같았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이달 초 경찰이 찾아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 물었고, 그는 동생이 형제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동생을 만나러 갔더니 거짓말처럼 동생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죠. 어렸을 적 모습은 없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가 된 것만 같아 아직까지 기본이 이상해요.” 한참을 번갈아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가족들.

종복씨는 동생이 언어 장애가 있어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동생 기본이 아주 좋아보였다고 했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음식을 잘 넘기지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종복씨는 동생을 찾으려고 부산 소재 고아원을 돌아다녔지만, 먹고 살기 바빠 계속해서 찾지 못했다. 동생의 입영 시기가 되자 결국 사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살다보니 동생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 자꾸 동생 생각이 났어요. 동생도 생각났던 건지 저를 찾아주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렵게 찾은 동생이니 자주 얼굴 보여 왕래해야죠. 동생의 과거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좋은

분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어 안심입니다.” 종복씨는 “형님이랑 누님, 동생들랑 만났으니 아주 보고 행복하자”고 동생에게 전했다. 또 자기일처럼 부듯해했던, 가족을 정성껏 찾아준 장성 경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6·25 전쟁, 미아, 해외 입양 등 찾지 못한 가족의 예타는 사연은 경찰 ‘헤어진 가족찾아주기’를 통해 상담해 볼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지난 7일 장성경찰서에서 최종원(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씨가 56년만에 형제들을 만났다.

광주전남언론인회, 대구경북언론인회 초청 간담회 ‘5월 광주’ 진실 알리는 데 앞장 다짐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원로 언론인단체 대표들이 만나 상호교류와 함께 ‘5월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사진) ‘광주전남언론인회’(회장 김성)는 최근 ‘대구경북언론인회’(회장 이경우) 임원진을 광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사)대구경북언론인회 이 회장과 류수열 직전회장, 김선영 부회장, 이수만 사무총장 등이 광주를 찾았고, 광주전남언론인회 회 회장과의 간담회 직전회장, 정용화 부회장, 서상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이후 임원진들은 ‘전일빌딩

245’를 방문해 1980년 ‘5월 광주’의 역사현장을 살펴봤다. 계엄군의 헬기시격 탄환흔적 245개가 남아있는 전일빌딩의 5·18 기념공간에서 사진과 영상, 각종 기록물을 들을 못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임원들은 “1980년 광주의 참상과 언론탄압 등을 생생히 실감했다”며 “영남지역민들에게 당시의 올바른 진실을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단체는 지난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상호방문과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우의를 다져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5·18 44주년 기념 ‘제3회 전국 무등산무등길완주대회’ 성황리 개최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기념하는 ‘제3회 전국 무등산무등길완주대회’가 지난 11일 무등산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사)무등산무등길협회의와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동구·북구, 담양군·화순군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광주·화순·담양 등 무등산 자락 51.8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완주(51.8km)와 하프(13·23·33·43km), 5·18 사적지와 무등길 15구간(푸른길)을 중심으로 한 시인 경기(5.18km) 등 다양한 코스로 나눠 열린 이번 대회에는 1800여명의 참가자와 3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다. 전국에서 온 참가자 중 300여명이 51.8km구간을 제한 시간인 11시간 안팎에 완주하는 기업을 보였다. 3년 연속 참가자 49명에게는 최다 참가상이 주어졌으며, 최연소(12세), 최고령(78세), 외국인 참가자상 등이 수여됐다.



아름다운 무등산 자락의 천년 문화를 한 바퀴 돌아 보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로 36개 마을과 마을을 잇는 500년 이상 된 옛길을 1910년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발굴·복원한 무등산 둘레길이다. 광주역을 출발해 전남대, 각화저수지, 담양·화순, 광주전·푸른길을 지나 광주역으로 순환하는 16개 길로 구성돼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 변헌수 교수, ‘도레이화학공학상’ 수상

전남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변헌수(사진) 교수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에서 2024년도 ‘도레이화학공학상’을 수상했다. 변 교수는 지난 8·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공회학회에서 ‘Best Paper Award’ 상도 받았다. ‘도레이화학공학상’은 화학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학술적 업적 및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다. 변 교수는 화공 및 고분자 열역학, 초임계유체

공정, 분리공정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최근 2년간 SCI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로 선정돼 ‘영문지 공로상’도 동시에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가정의 달 기획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5 불편해도 관참아(재) 10 TV쇼 진품명품(재)	00 먹살 한 번 잡시다(재)	15 헬로킴즈 공학교실(재) 30 토닥토닥 꼬꼬 새로운 탐험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글로벌 도네이션쇼 W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오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쇼케이스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헬로킴즈 동물교실(3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도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영동발발 콩순이와 친구들(8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55 5 MBC 뉴스	00 보물지도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폭수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토크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폭수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10 함부로 대해줘(첫회)	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통사리 2너는 내 운명
[11]	3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25 아이 러브 스포츠 5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0 도시락 스페셜
[12]	4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①:05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스포츠 매거진	50 휴먼다큐 마냥 이쁜 우리맘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숲이 그린 집	16:5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10 명탐정 피트(4재)
05:5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06:1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7:00 미스터리야	12:00 EBS 뉴스 12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7:15 빅 블루	12:10 극한직업	19:20 고향만국
07:3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탐골스타 개청이(재)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재)	20:10 탐골스타 개청이
08:00 당당맨 유치원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0:30 오우오우 내 새끼
08:20 한글용사 아이야(재)	15:15 클래스 e	20:40 세계테마기행
08:3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15:55 불복스	<인도네시아 뜨거워서 좋아, 브로모>
08:50 도레미 프렌즈	16:10 당당맨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9:00 뒤죽박죽섬의 빅토패밀리 쇼츠	16:30 패파 피그	<삼마를 만백 1부 먹다 치러도, 대이적도>
09:05 엄마 까투리	16:40 마사와 곰	21:55 PD로그
09:20 미리 가면 대학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22:45 EBS 다큐프라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3일(음 4월 6일 丁丑)	☎ 010-9790-8237	
36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48년생 장애 요소가 나타나겠지만 손을 쓰면 곧 수습되리라. 60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 역사다 알고 있는 니라. 72년생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통일성을 갖게 된다. 84년생 조인을 구한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96년생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0, 93	42년생 신신함은 있지만 아직 미숙함으로 인해서 불안정하다. 54년생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66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78년생 소홀히 해왔던 점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90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02년생 계산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06, 67	
37년생 일방적이거나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49년생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만 실수 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61년생 뜻밖으로 이종 또는 삼종의 행운이 따르리라. 73년생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85년생 공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얻으리라. 97년생 바로 잡아 후환을 예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 85	43년생 발전을 위한 노고는 당연한 감수해야 하나니라. 55년생 신중 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 67년생 숙시원한 결말은 없고 계속 지연만 되는 동세이다. 79년생 기본 진로는 안전하지만 비보호 좌회전도 있다는 사실을 알라. 91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03년생 생전에도 무리수는 두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2, 70	
38년생 상대의 충고를 가뭇게 여기지 말라. 50년생 실기된 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라. 62년생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74년생 바야흐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86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98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23, 69	44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56년생 기함을 도과한다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68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80년생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의 의사에 따라 휘아 날려 영육이다. 92년생 구상은 좋으나 추진 에너지가 없어서 문제다. 04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선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18, 66	
39년생 성실한 이행은 성취의 길목으로 이끌기에 손색이 없다. 51년생 약간의 변동수가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63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75년생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 87년생 보기 드문 길사가 기다리고 있도다. 99년생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지경이다. 행운의 숫자 : 22, 60	45년생 여태까지 쌓아 온 바를 평가 받게 되리라. 57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69년생 몇 발자국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이리라. 81년생 접근성이 좋아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니라. 93년생 쏟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주위 담도록 하자. 05년생 느끼기 여의치 않다면 중도에 내려 놓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1, 56	
40년생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리라. 52년생 시기와 구체적인 범위의 구획에 따라 그 성과는 천차만별 하리라. 64년생 동반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76년생 시도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88년생 상향 조정되거나 훨씬 높아지는 판시세로다. 00년생 객관적이지 못하면 무의미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9, 90	46년생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취할 수도 없다. 58년생 절제하지 않는다면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70년생 자연스럽게 실감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다. 82년생 상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만 하느니라. 94년생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06년생 동선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9, 94	
41년생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53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65년생 생산성을 증폭시키는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 77년생 대세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마음을 알아 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01년생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9, 62	47년생 어떠한 기준이나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47년생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무궁한 발전에 이르게 된다. 59년생 미흡함이 보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해야겠다. 71년생 절실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83년생 일시적인 반복이나 불협화음이 보인다. 95년생 완전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1, 91	